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3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31.

발 의 자 : 조정훈 · 김미애 · 최수진
김대식 · 인요한 · 김용태
유상범 · 정성국 · 박준태
서명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. 또한,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.

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,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에 파견하고,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5 신설).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1절에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5(파견근무) ① 사립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)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,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(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(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)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을

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·기간·절차, 파견근무 중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5조의5(과건근무) ① 사립학교</u> <u>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</u> <u>학교는 제외한다) 교원의 임용</u> <u>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, 업무</u> <u>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</u> <u>연수,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</u> <u>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</u> <u>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</u> <u>단체,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</u> <u>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에 일</u> <u>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</u> <u>있으며,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</u> <u>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</u> <u>필요하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</u> <u>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</u> <u>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(사인</u> <u>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</u> <u>그가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)으</u> <u>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</u> <u>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(제2</u> <u>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학</u></p>

교의 장을 포함한다)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·기간·절차, 파견근무 중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